

고규홍의 '나무 생각'



나무 심는 마음으로 나라를 일으키다

이 땅에 새 나라를 일으키겠다는 마음을 다진 이성계(李成桂, 1335~1408, 재위 1392~1398)는 하늘을 바라보며 나무를 심었다. 20대의 청년 이성계는 흥건적의 침입을 물리치고 개경을 탈환하는 위업을 비롯해 왕실의 안정을 도모하며 승승장구했다. 무예가 뛰어난 그는 특히 활 솜씨가 뛰어나 '신궁(神弓)이라는 칭호를 얻으며, 역사상 최강의 공격형 장수로 이름을 떨쳤다.

운이 다한 고려를 뒤엎을 꿈을 꾸던 세력들은 자연히 이성계 주변에 모여들었다. 그러나 인맥뿐만 아니라 경제력 또한 만만치 않았던 이성계는 귀족 출신이 아닌 데다 변방 세력이었다. 그가 기존의 세력을 뒤엎고 새 나라를 일으킨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다. 생명까지 내던져야 할 만큼 위험한 도전이었다. 고민은 깊었다. 이성계는 조선 팔도를 유람하며 건국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올렸고 건국의 재배에 공을 들였다. 그리고 그는 나무를 심었다. 하늘의 뜻에 따라 삶과 죽음이 갈리는 나무처럼 운명을 하늘에 맡기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맹세의 상징이었다.

전북 진안 마이산의 아늑한 절집 '은수사' 경내에 서 있는 청실배나무가 그 가운데 한 그루다. 말(馬)의 귀(耳)를 닮은 마이산(馬耳山) 자락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은수사 경내에 서 있는 이 청실배나무는 백일기

를 올린 이성계가 손수 심은 씨앗이 싹을 틔운 나무다. 이성계는 꿈속에서 선언으로부터 '이 나라 땅을 헤아려 보라'는 말과 함께 금으로 된 자(金刀)을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얼마 뒤 그는 마이산을 지나면서 꿈속에서 선언으로부터 금척을 받았던 곳과 똑같은 형태의 마이산을 보고 놀랐다. 이성계는 곧바로 마이산 깊은 곳에 파리를 틀고 나라를 세울 꿈을 차근차근 키워 갔다.

그때 절집의 샘물을 떠 마신 이성계는 물이 은(銀)처럼 맑다 하여 절집에 '은수사' (銀水寺)란 이름을 붙였다. 그는 개국의 꿈을 키웠고 열렬한 마음으로 하늘에 기도를 올렸다. 모든 계획을 치밀하게 마무리하고 기도를 마친 뒤, 그는 자신이 머무르던 요사채 앞에 한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모든 걸 하늘에 맡기겠다는 '진인사대천명'의 다짐이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보호하는 '진안 은수사 청실배나무'는 높이 15m, 가슴 높이 둘레는 2.5m나 되는 큰 나무다. 줄기는 어른 키보다 좀 위에서 넷으로 갈라져 곧게 솟아오르다가 사방으로 고르게 14m까지 가지를 펼쳤다. 나무는 조선 개국의 전설을 품은 영산(靈山) 마이산의 상징으로 남았다.

이성계는 마이산 은수사뿐만 아니라 이 땅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땅의 기운을 얻기 위해 더 많은

곳을 찾아다니며 기도를 올렸다. 전남 담양 대치리 한 재초등학교의 느티나무도 건국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이성계의 소망이 담긴 나무다. 이 자리에서도 마이산 은수사에서 그랬던 것처럼 기도를 마친 그는 나무를 심었다.

국가 운명을 쥐락펴락하겠다는 사람들의 뉴스가 잇달아 뉴스의 톱으로 올라온다. 그러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그들이 내놓는 계획은 도무지 미답지 않다. 대관절 무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종작없이 떠도는 '아무 말 잔치'가 천연덕스럽게 펼쳐진다.

20대의 젊은 시절부터 풍전등화에 빠진 나라를 구하고자 했던 이성계는 나라의 사정이 목숨을 바쳐서 지켜야 할 만큼 온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썩어가는 나라의 운명을 바로잡겠다고 마음을 다졌지만, 결코 선불리 나서지 않았다. 주변에 몰려드는 군중의 환호성에 결코 일리없게 떨어졌다.

직수곳이 하늘의 뜻을 살피고, 한 그루의 나무를 심으며, 새 나라 건설을 착실하게 재비했다. 오래도록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는 강건한 국가를 이루기 위한 준비는 선불리 이뤄지지 않는다는 걸 그는 잘 알았다. 나무처럼 천천히 그러나 더 강건하게 이어 갈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내다보는 지도자의 지혜가 아쉬운 시절이다. <나무 칼럼니스트>

의료칼럼



조형훈
조선대치과병원 치과보존과 교수

흔히 신경치료라고 불리는 근관(根管)치료는 우식이나 파절, 균열 등으로 인해 치아 내부의 근관에 존재하는 치수(齒髓)가 감염된 경우에 시행하게 되는 치료술이다. 이는 치아를 보존하기 위해 감염된 치수를 제거하고, 근관 내부를 소독하고, 충전재로 충전하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근관치료의 성공률은 100%가 아니다. 근관치료가 성공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은 바로 사람의 근관이 해부학적으로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다. 실제 치아 뿌리와 그 내부는 단순히 원형의 관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고 매우 복잡한 형태여서 치아의 머리 부분부터 진입해, 그 내부를 완전하게 제거하고 소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 근관치료 발전으로 인해 그 성공률은 과거에 비해 높아져 90% 이상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여전히 100%가 되지는 못하고 있다.

근관치료가 실패한 경우, 먼저 '재근관치료'를 시도해볼 수 있다. 이는 근관 내부에 충전된 재료를 제거하고, 다시 소독하고 치료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근관 내

치아 보존 위한 마지막 치료, 미세 치근단 수술

부의 재료를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특히 근관 내부에 기둥이 식립된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이 매우 어렵고 때로는 불가능하다. 또 뿌리 끝이 없어지지 않는 물혹이 생겼거나 뿌리 끝이 녹아 버린 경우, 충전 재료가 뿌리 끝을 넘어간 경우 등에서는 수술을 통하지 않고서는 치료가 매우 어렵다.

이 경우 마지막으로 치아를 살리기 위해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수술적인 재근관치료이다. 수술적 재근관치료 방법은 두 가지가 있으며, 이 중 하나가 치근단(齒根端)치아뿌리끝) 절제술로 알려졌는 치근단 수술이다. 이 수술은 일반적인 근관치료로 뿌리 끝 부분까지 접근하기 어렵거나 접근할 수 없는 경우, 뿌리 끝으로 직접 들어가서 치료를 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 잇몸을 절개하고 잇몸뼈를 일부 제거한 후, 뿌리 끝의 염증이나 물혹을 제거하고 뿌리 끝부분 일부를 잘라내고 뿌리 끝에서부터 역방향으로 근관을 충전하는 방법이다.

과거에 시행했던 치근단 수술은 뿌리 끝을 잘라내기만 하거나 맨눈으로 수술을 했기 때문에 부정확한 수술이 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로 인해 성공률이 약 60% 정도로 높지 않았고 합병증도 종종 발생했다.

그러나 최근 치근단 수술에 치과용 콘빔시티(CBCT)와 치과용 현미경, 초음파 기구, 그리고 생체 친화성과 밀폐성이 높은 MTA와 같은 바이오세라믹 역충전 재료를 사용하면서 그 성공률은 90% 이상으로 뛰었고, 합병증 비율도 낮아졌다.

이러한 최신 트렌드의 치근단 수술은 이전의 수술과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기에 미세 치근단 수술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치과용 현미경을 이용하면 작게는 2배에서 크게는 20배 이상 대상을 확대·관찰해 치료할 수 있기에 크기가 작은 치아와 근관을 치료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특히 최신 미세 치근단 수술은 현미경을 이용하기 때문에 잇몸 절개와 잇몸뼈 삭제를 최소화하고, 뿌리 끝을 정확하게 관찰해 치료 실패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하기 때문에 치료의 성공률을 높이고 합병증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물론 근관치료된 치아를 발치하게 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치아 뿌리에 금이 가거나 부러진 경우는 미세 치근단 수술을 통해서도 치료가 불가능하다.

최근 치과용 임플란트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 치아 발치 후 기능과 심미를 과거와 비교도 안될 정도로 훨씬 쉽게 회복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자연 치아 보존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물론 임플란트가 상실된 치아를 회복하는데 가장 획기적이고 빠른 치료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임플란트가 아직까지는 그 형태와 기능에 있어서 자연 치아 자체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근관치료는 충치 등으로 손상된 치아를 한 번 더 살려서 쓰기 위한 유일한 치료 방법이다. 그리고 근관치료가 실패한 경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미세 치근단 수술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자연치아를 가능하면 오랫동안 보존해 사용하기 위해서는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환자 스스로의 노력이 아주 중요하다.

기고

합동평가도 축구처럼 원팀 게임이다

아 제출한다. 각 시도가 최선을 다하는 만큼 최종 우수 사례로 선정되는 게 꽤 까다롭다.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 동기부터 추진 과정 그리고 결과까지 지표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원의 노력이 합쳐져야 가능하다.

2021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우리 도가 21개 정성지표 중 8개 지표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된 것은 도 및 22개 시군이 합심한 결과였다. 그렇다면 내년도 합동평가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먼저 합동평가는 단체전이라 할 수 있다. 단체전에서는 주전 한 명의 선수 능력과 활동만으로는 승리하지 못한다. 축구에서 주공격수가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중앙 선수의 공 배급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수비수가 골키퍼가 자칫 실수라도 하게 되면 그 경기는 패배하게 된다. 합동평가도 마찬가지다. 도 담당 부서나 시군에서 특정 지표를 소홀히 하거나 실적 달성이 어렵다고 쉽게 포기하게 되면 전체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목표 달성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

두 번째는 개인기를 갖추어야 한다.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탁월한 성적을 내고 있는 손흥민 선수도 기본적으로는 탄탄한 개인기가 있기 때문에 팀에서 자리를 지키고 출전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지표별 합동평가 담당자도 본인이 맡은 분야에서만큼은 최고의 기량을 갖추어야 한다. 지표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제도 개선, 예산 확보, 운영 실적, 홍보 활용 등 평소 애꾸준하 실적을 쌓아야만 연말에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감독의 역할이다. 중요한 대회에서는 감독이 상대 팀에 맞춘 특성화된 전략을 짜고 선수 한 명 한 명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경기의 흐름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다. 감독 역할을 하는 총괄 책임

자가 종합 대응 계획을 세워 매월 달성해야 하는 담당별 목표를 명확히 지정해 주고, 계획 대비 실적이 나지 않는 지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해 감으로써 결국에는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것이다.

평가 준비는 고달프지만 결과가 좋으면 도민은 행복해진다. 최근 지자체의 행정 능력이 상향평준화되면서 합동평가에서도 우위를 가르게 되는 것은 백지장 한 장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다. 순간의 방심이나 안일한 전체 실적에 영향을 미치고 순위가 바뀌게 된다. 확장 시절 시험을 보고 나면 늘 아쉬움이 남곤 했던 것처럼 평가라는 것도 역시 웬지 모를 아쉬움이 진하게 남는다. 아마도 개인이 아닌 단체전이기엔 결과에 대한 미련도 더 큰 것 같다.

어느 조직이나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게 되면 노력에 대한 보상이 주어진다. 합동평가 역시 일한 만큼의 공지를 풀어내기 위해 평가 결과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이 나 성과관리(BSC) 가점을 부여하는 한편 우수 시군에는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제아무리 보상이 주어진다 해도 본연의 업무 처리에 더해 합동평가 지표까지 맡아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챙겨야 할 것이 많아지고 더 바빠지게 되는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담당자 입장에서는 답답지 않겠지만 지표 하나하나가 모여서 목표를 달성하고 자랑할 만한 우수 사례가 많아지게 되면 결국엔 도민이 편하게 된다는 점을 되새겨야 한다. 이왕 받는 평가에서 전남이라는 원팀(ONE-Team)으로 좋은 결과까지 얻게 된다면 기분 좋은 일이 아닐까. 오늘도 늦은 밤까지 불 꺼지지 않는 도와 시군 평가 담당 부서 공무원들을 응원한다.

社說

광주·전남 예산 추가 확보에 총력 기울여야

광주시와 전남도의 주요 현안 사업이 대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됐다. 이 지역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현안 추진에 정신호가 켜진 셈이다. 광주시의 정부 예산 반영액은 3조1457억 원으로 올해 대비 3819억 원 늘었다. '인공지능도시 및 경제 광주 기반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인공지능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666억9000만 원), 자율주행차 대응 편이내장 부품산업 고도화(30억 원), 첨단실감 문화콘텐츠 테마파크 조성(5억 원) 사업 등이 눈길을 끈다. 이들은 광주 경제 체질을 바꾸고 미래를 기억하는 사업이다.

전남도의 예산 규모도 7조5000여 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300억여 원 늘었다. 구체적으로 m-RNA 백신 실증 지원 기반 구축,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등 미래 성장과 직결되는 사업들을 반영시켰다. 타당성조사 용역비 5억 원이 반영된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은 향후 1조 원대 연구시설을 전남

에 유치하는 첫 단추를 끼운 것으로 평가된다.

양 시도가 코로나19 사태에도 일정 부문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으나 추가 확보해야 할 현안들이 적잖은 것도 사실이다. 전남도의 경우 광양항 3·2단계 자동화 '컨' 부도와 여수~남해 해저터널, 신안 추포~비금 연도교 등의 건설 사업비 확보가 필요하다. 광주시도 비엔날레전시장 건립(80억 원)과 '국가 고자기장연구소' 구축 예비타당성 기획연구 용역(10억 원), RE100 전주기 중소기업지원센터 구축(31억 원) 예산 확보가 과제

로 남아 있다. 이제 광주시와 전남도는 정부 예산에 미반영된 현안 사업비를 차질 없이 확보하기 위해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적극 개발하고 재정 당국을 설득해야 한다. 지역 정치권도 지역의 미래가 걸린 예산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 또는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반려동물 하루 10마리꼴로 버려진다는데

반려동물 인구 1000만 명 시대다. 전국적으로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 또는 2세대 중 1세대는 개나 고양이와 같은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동물 복지' 차원에서 살펴보면 여전히 문제가 많다. 특히 광주시가 2020년 7월 내놓은 '동물 복지 5개년 종합 계획' 자료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반려견과 반려묘가 하루 10마리 꼴로 버려지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한 해 동안 버려진 애완견과 애완묘는 3000여 마리나 되며, 대부분 자연사나 안락사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전남 지역의 반려동물 등록률 또한 타 지역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이'가 내놓은 '2021 동물 복지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를 보면 광주 지역 반려동물 등록률은 6대 광역시 중 가장 낮

은 71.4%(전남은 81.8%)로 집계됐다.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광주는 58.3%, 전남은 35.7%만이 중성화 수술을 했다고 답했다. 중성화 수술은 반려동물의 질병 예방과 동물 유기 약속한 방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의 의식 수준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이 키우는 반려동물은 반드시 등록하고 중성화 수술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끼던 애완동물을 거리에 함부로 유기하는 행위도 근절되어야 한다. 개와 고양이 등을 진정한 '반려' 개념으로 키우고자 한다면 동물의 입장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 역시 제고해야 할 것이다. 중성화 수술이 저조한 까닭 중 하나는 동물병원의 진료비 부담 때문이라고 하니 중성화 수술비 지원 등의 대책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無等鼓

사서삼경(四書三經)은 누구나 한 번쯤 읽어야 할 동양의 고전이다. 사서(四書)는 대학·논어·맹자·중용이요 삼경(三經)은 시경·서경·역경(주역)을 말한다. 이 중 가장 읽기 힘든 게 서경(書經)이라고 하는데, 워낙 방대한 내용인 데다 해독하기 어려운 정도로 보존 상태도 엉망이기 때문이다.

서경은 중국 고대 정치 문서를 편집한 책으로, 공자가 첫머리를 지었거나 엮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 지나마져 불명확하다. 하지만 중국 고대

치우침의 해소

나라·주나라까지 역성혁명, 예인사상, 신상 필멸, 민본주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조선 시대 왕가나 양반 가문 등에서 필독서로 읽혔다. 특히 서경은 정치 이념을 논하거나 왕에게 특별히 의견을 제시하는 상소문에 단골로 인용됐으며 상당수 사자성어나 잠언도 여기서 나왔다.

조선시대 왕 가운데 서경을 특히 중시했던 이는 영조인데 그의 탕평책(蕩平策) 역시 서경에 나오는 "편이 없고 당이 없이 왕도는 탕탕하며, 당이 없고 편이 없이 왕도는 평평하다"란 구절에서 비롯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회합 정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연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민 대통합', 문재인 대통령의 '협치 내각' 시도 역시 탕평에서 비롯됐 것이다. 다만 이는 진정한

성의 결여나 상대편의 거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성공하지 못했고 이는 과

도한 치우침의 결과를 낳았다. 보수·진보 모두 극단적으로 상대편을 힐난하는 가운데 치우친 인사 정책을 반복한 것이다.

이렇게 되니 선거에서 무조건 이겨야 하는 구도가 형성되고, 인구가 몰려 있는 수도권에 과도한 국가 재정을 투입하면서 국도는 완전히 균형을 잃어 버렸다. 따라서 내년 대선에 나설 후보들은 수십 년간 계속되어 온 이러한 치우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유현석 정치부 부장 chadol@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